

# “광주공장 매각 자금 1조 기대 못미쳐...광주시와 협의할 것”

##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합병 이전 과제

그동안 '말로만 나왔던'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의 빛그린산단 이전 작업이 이전계약금 납부를 기점으로 공식화됐다. 금호타이어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계약을 시작으로 이전 절차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하지만 현재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부지 매각 및 개발사업은 아무런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어 실제 공장 이전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는 금호타이어는 현 광주공장 부지 매각 대금으로 최대한 자금을 확보해 공장 신축·이전 비용을 마련해야 하지만, 부지 매각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어서이다.

9일 금호타이어와 지역경제계 등에 따르면 최근

## 합평군-LH 행정 절차 단축 땀 1년내 빛그린 산단 착공

## 공장 신축·통상임금·부채 만기 도래 등 자금 확보 급선무

금호타이어가 LH 측에 이전계약금을 납부하면서 향후 1년 안팎 내에 신규 공장 착공에 들어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설계변경과 인허가 등 행정절차에 1년 정도의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며, 행정처리가 완료된 이후 최종 계약을 체결한 뒤 착공에 들어가게 된다. 합평군과 LH가 각종 행정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할 경우 착공 시점은 더 앞당겨질 수도 있다.

이처럼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의 빛그린산단 이전

작업이 본격화된 모습이지만, 여전히 현 공장부지 매각 및 개발사업은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다.

금호타이어측은 현재 광주공장 부지 매각 및 개발사업 공고를 내고 사업제안서를 제출한 참여 컨소시엄과 협상을 진행 중이다. 앞서 지난해 9월 금호타이어의 개발사업 공고에는 3개 컨소시엄이 참여해 각각 1조원대의 사업제안서를 제출했으나, 금호타이어 측은 이들에게 사업제안서를 변경해 다시 제출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호타이어가 사업제안서 변경을 요청한 배경으

로는 '기대에 못 미치는 매각 대금'이 가장 큰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974년 설립된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은 심각한 노후화를 겪고 있으며, 전기차 시대로의 전환 등에 따른 신규 기술 도입, 생산설비 교체 등에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다.

당장 공장 이전 및 신축에 투입될 비용만 1조 2000억원대로, 컨소시엄들이 제시한 1조원대 매각 대금으로는 공장 이전조차 어렵다. 여기에 통상임금 관련 파기환송심 재판 결과에 따라 그동안 밀린 임금 2133억원도 지급해야 할 수 있고, 내년에는 1조원 상당의 부채 만기가 도래해 부지 매각 대금으로 자금을 확보해야 하는 실정이다.

금호타이어 입장에서는 광주공장 부지를 매각한 대금으로 공장을 신축하고 경영정상화를 위한 자금

까지 확보해야 하는 처지로, 부지 매각에 차질이 빚어질 경우 회사의 존폐마저 장담할 수 없게 된다.

하지만 광주공장 부지가 상업용지로 용도변경을 하는 데 소요될 기간도 예측할 수 없고, 용도변경 후에도 각종 인허가 절차 등이 남아있어 개발사업 착수 시기는 늦어질 수밖에 없다. 개발사업 시기가 불투명한 데다, 광주시가 아파트 위주의 개발에 부정적이라는 점에서 사업수익을 가늠할 수 없는 탓에 개발업체도 금액을 높여 해당 사업에 뛰어들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금호타이어의 한 관계자는 "친환경 미래차 중심으로 급변하는 패러다임 속에서 전기차 시장 대응을 위한 신규 기술 도입과 광주공장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광주시와 협의를 진행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xer@kwangju.co.kr

# 대형업체 커피값 인상 경쟁 지역 영세 업체 '출혈 전쟁'

스타벅스 46종 음료 100~400원·파리바게트 '아메리카노 두 배' 영세 업체들 손님 잃을까 저가 고수...58.6% 개업 3년만에 폐업

새해 벽두부터 대형 커피브랜드들이 줄이어 가격을 올리면서 외식물가 기상도가 또다시 흐려졌다.

국내 최대 커피브랜드인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한 잔(355ml)이 4500원에 달하게 될 정도로 인상 폭이 크지만, 영세 프랜차이즈와 단독 매장은 손님을 잃을까봐 울며 겨자먹기로 저가를 유지하고 있다.

스타벅스 코리아는 오는 13일부터 일부 음료 가격을 인상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는 지난 2014년 7월 이후만 7년 6개월 만의 인상이다.

이날부터 스타벅스 음료 53종 중 46종이 각각 100원~400원 오른다. 대표 음료인 카페 아메리카노 가격은 4100원에서 4500원이 되고 카라멜 마키아또는 5900원이 된다.

스타벅스 측은 "원두 등 각종 원부재료 가격과 코로나19로 인한 국제 물류비 상승 등에 따라 음료 가격을 인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파리바게트도 같은 이유로 1500원 하던 아메리

카노 가격을 2배 가까이 올렸고, 공차코리아는 지난달 전체 37개 음료 중 밀크티·스무디·커피류 등 21종을 200~300원 인상했다.

스타벅스 건을 계기로 할리스 등 다른 경쟁업체들도 잇따라 가격을 올릴 가능성도 점쳐진다.

대형 커피브랜드들이 풍부한 자본과 경쟁력을 기반으로 몸집을 키워갈 동안 독자 매장과 영세 프랜차이즈들의 출혈경쟁은 심화되고 있다.

광주 충장로 안에서도 유동인구가 많은 이른바 '콜박스 사거리'에서 음료 전문점을 꾸려온 A(33)씨는 6년여 간 영업을 마무리하고 이달 셔터를 내린다.

이 매장은 이 기간 동안 커피 외식물가가 4% 오를 동안 아메리카노 1000원을 유지해왔다.

커피 한 잔을 팔더라도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공급하는 원두만 써야 해서 반타작도 못한다는 게 A씨 설명이다.

6년 넘게 광주 수원지구를 기반으로 영업해온 한 딸기 디저트 전문점은 최근 대표 상품 딸기 케이크 가격을 3만원에서 3만5000원으로 16.7% 올렸다.

지난 겨울부터 딸기 가격이 kg당 2만4000~2만7000원으로 전년보다 2배 가까이 올랐지만, 예약 구매자 700명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 성탄까지 인상을 미뤘었다.

KB 경영연구소의 분석(2019)에 따르면 광주 커피전문점의 58.6%는 개업하고 3년을 버티지 못하고 문을 닫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커피전문점들의 평균 비중 53.4%를 크게 웃돌았다. 전남 커피전문점의 절반 이상(51.8%)도 3년 미만 폐업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함치게 출발합니다 광주은행(은행장 송중욱·앞쪽 왼쪽 5번째)은 최근 동구 대인동 본점에서 '2021년 신입행원 수료식'을 열고 지역출신 16명을 포함한 20명의 신입행원들과 새해 힘찬 출발을 다짐했다. 이들은 각 지점에 배치돼 6개월 수습기간을 거친 뒤 오는 7월 입행식을 치르게 된다. <광주은행 제공>

## 국민연금 2.5% 더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2021년도 전국 소비자물가 변동률(2.5%)을 반영해 올해 국민연금 급여액을 조정한다고 9일 밝혔다.

예를 들어 기존 매월 100만원을 받던 연금 수급자는 올해 1월부터 2만5000원(2.5%) 인상된 102만5000원을 수령한다.

배우자, 자녀, 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는 연금수급자가 가족수당 성격으로 받는 부양가족 연금액도 2.5% 오른다.

올해 처음 연금을 받는 사람의 'A급'(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은 전년보다 5.6% 증가한 268만1724원으로 정해졌다.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국민연금 수급자는 노령연금 476만명, 장애연금 7만명, 유족연금 87만명이다.

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국민연금 재평가 및 연금액 조정'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으며, 오는 13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최종안은 이달 중 확정할 예정이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한전, 전력선 직접활선 작업 '퇴출'

'협력사 근로자 감전사' 두 달 만에 사과...재발 방지책 발표

한국전력이 여주 협력업체 근로자 김다운씨의 감전 사망사고가 발생한 지 두 달 만에 '안전사고 근절을 위한 특별대책'을 9일 발표했다.

오는 27일 종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작업자가 전력선에 접촉하는 '직접활선' 작업을 퇴출하기로 하는 등 3대 주요재해별 실효적 대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전은 감전·끼임·추락 등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치명적인 3대 주요 재해에 대해 미리 정한 안전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만 작업을 시행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감전사고 근절을 위해 직접활선 즉시 퇴출, 정전 후 작업 확대, 간접활선 지속 확대 등을 통해 작업자와 위해 요인의 물리적 분리를 시행할 방침이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정승일 한전 사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한전아트센터에서 안전대책을 발표하며 협력업체 근로자의 감전 사망사고와 관련해 공식 사과했다.

정 사장은 "2018년부터 간접활선 작업으로 전환되고 있으나 약 30%는 여전히 직접활선 작업이 이뤄지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앞으로는 이를 완전히 퇴출해 작업자와 위해 요인을 물리적으로 분리하겠다"고 밝혔다.

한전은 모든 전기공사에 '1공사현장 1안전담당자 배치' 원칙 적용을 위한 인력·장비 실명제와 안전담당자 전수검사를 벌인다.

불법이 발견되면 해당 업체에 벌점을 주고 반대로 무사고 달성, 안전의무 이행 우수업체 등에 대해서는 혜택(인센티브)을 확대한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로또복권 (제997회)

당첨번호	2등 보너스숫자	
4 7 14 16 24 44	20	
등위	당첨금(원)	당첨자수
1 6개 숫자일치	1,253,749,560	19
2 5개숫자+보너스숫자일치	46,708,317	85
3 5개 숫자일치	1,075,354	3,692
4 4개 숫자일치	50,000	155,887
5 3개 숫자일치	5,000	2,331,995



함께하는 100년농협

## 아름다운 동행 서광주농협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NH 국민은행**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쿨!

조회,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비서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로마트에서 쿨 바로 바로 확인까지 쿨!

**NH가성비국민건강보험 2004 (무배당)**

가성비를 갖춘 합리적 선택!

심장질환 + 뇌질환 2대 혈관질환! 든든하게 준비하기! 진단비와 수술비를 동시에!!

**서광주농협에서 더 편안한 환전·해외송금을 말하!**

환전부터 해외송금까지 수수료 우대 적용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저신용자, 저소득자 서민(사업자 및 근로자)을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 362-8400~6 FAX. 062) 362-8407

운암백산지점 062)529-5335~6  
상무동지점 062)372-3741~2  
용산지점 062)526-0222~3  
지평지점 062)381-8212~3

쌍촌지점 062)381-6551~2  
빛고을로지점 062)531-1213~5  
화정지점 062)372-0421~3  
로컬푸드직매장 062)364-8400

유동지점 062)512-1984~5  
농성지점 062)361-4472~4  
동림지점 062)513-8521~3  
유덕아니로마트 062)373-3235

기아자동차지점 062)385-4977~8  
운암지점 062)527-3295~6  
유덕지점 062)373-3235~6  
아니로마트점 062)511-2901~3

동운지점 062)528-2640~2  
비틀지점 062)381-1971~2  
운천지점 062)371-2772~3

지역대표 금융기관 서광주농협